# 조선업 휘청…허약한 지역경제 덮쳤다

/리뷰 2016/ ⑥ 조선·물류 경기 침체

## 현대삼호중 구조조정…협력사 등 수천명 실직·상권 침체

## 한진해운·현대상선 좌초에 물류대란…수출업체 이중고

올해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침체의 연속이었다. 지역 경제의 주축인 조선업종의 위기는 허약한 지역 경제를 휘청이게 했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왔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잇따라 좌초하면서 물류대란의 여파가 밀려왔다.

수주절벽에 따른 조선업종 위기는 지역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노동자가 4000명 넘게 감축됐고 매출액 감소도 2조원을 상회했다.

이 때문에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은 직영 인력 200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여개의 협력업체와 250여개의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들도 납품 물량이 크게 줄어 3800여명이 실직했다. 해남의 대한조선과 30여개의 협력업체도 사정이 비슷해 7000여명의 인력 가운데 280여명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주물량도 줄어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1조2000억원(36%)이나 감소했고 대불산단의 기자재 업체들도 한해 전보다 1조3000억원(39%) 줄어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가뜩이나 움츠러든 지역 경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됐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인근 식당과 상점들이 문을 닫는 등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9월들어 철도 화물 파업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대란도 지역 경제 악재로 작용했다.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업들은 수출물량 배송에 대한 차질과 함께 대체선박 확보에 따른 운임 상승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여수산단 수출입 업체들은 한진해운과 운송계약을 맺은 수출입 물량이 많아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그나마 지역 수출입업체 물동량 중 한진해운이 담당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었고 자동차 등은 한진해운 외 자체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해 41척을 수주했던 현대삼호중공업이 올해는 8척 수주에 그치고 있고, 14척을 수주했던 대한조선은 26일 현재까지 수주물량이 단 한 척도 없어 지역 주력사업 중 하나인 조선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지역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등 5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내년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사업'을 비롯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사업', '에너지 절감형 특화선종 개발' 등 5건의 조선기자재 다각화 사업에 국고 포함 105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계획이 추진되면 전남 조선업의 66%가 집적된 목포와 영암지역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구조고도화 및 사업 다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 성장 이산화탄소 고부가 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비롯한 '해양융·복합소재 연구기반 구축',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뿌리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5건의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끝〉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해 지역 경제는 주축 산업인 조선업종의 위기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한진해운 등 해양물류시스템이 잇따라 좌초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졌다. 영암 대불산단 한 조선 관련 업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송박영신'

## 31일 광주 금남로·전남 15개 시·군서 10차 촛불집회

## 민노총, 28일 새누리 광주시당 앞서…보신각 제야 시위

올해 마지막 날이자 주말인 31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는 제10차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 시국촛불대회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 목포 등 전남지역 15개 시·군에서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수요일인 28일 오후 5시30분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주관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노동정책 개악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이와함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번 주말 '송박영신'(送朴迎新)을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열고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를 함께 진행해 1월1일 0시를 넘어설 때까지 집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도 안국역 등 인근에 집회 신고를 내놓은 데다 '제야의 종' 행사 자체는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자칫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가능한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해 타종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 "촛불시위, 민주주의 작동에 감탄"

## 리퍼트 美대사 "현재 한미동맹은 최선의 상태"

마크 리퍼트(사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5일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한국의 촛불시위에 대해 "우리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작동을 목도해 감탄한다(admire)"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촛불시위에 대해 "집회나 평화적 시위는 한국 내부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에 관한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 내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하고 초당적 지지가 있고 현재의 한미동맹은 최선의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더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는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퍼트 대사는 이어 "한미동맹은 6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전시든 평시든,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욱 강력해졌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그런 큰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달린 일이지만 한미 간에는 이 문제를 풀 메커니즘이 있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 1년 연기 유력

## 교육부, 오늘 추진 방향 발표

## 접수 의견 3807건 집계

## 적용 시기·방법 등 공개

## 역사·교육학자·대학원생 등

## 국정 교과서 폐기 요구 성명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이 27일 결정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7일)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담화 형태로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웹사이트 방문자는 총 7만 6949명, 교과서 열람횟수는 14만 6851건, 접수된 의견은 3807건(제출자 233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의견 중에서는 교과서 내용 관련 의견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관련 67건, 이미지 관련 31건, 비문 지적 13건이었다.

나머지 2066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등 기타의견으로 분류됐다. 27일 발표에서는 웹페이지에서 수렴한 의견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토대로 국정교과서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의 방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맞춰 새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용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더해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화 추진 동력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시행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할 것이 유력시된다.

한편 전국의 역사·역사교육 학자 및 대학원생 1579명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역사·역사교육 학자와 대학원생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도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 164개 대학과 164개 역사 관련 학회(단체) 소속 역사·역사교육 학자와 대학원생 1579명이 성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만의 정파적 필요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추진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정 농단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성숙 위해 낡은 것 버리고 새로운 것 창조해야"

## 염수정 추기경 신년 메시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26일 "끊임없이 발전과 성숙을 위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염 추기경은 고사성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덕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위해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나사렛 성가정(聖家庭)을 본받아 사랑과 나눔 안에서 큰 기적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가족 간의 사랑과 일치로 이루어진 성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또 "아무리 암흑이 우리를 감싸도 아침의 해는 떠오른다"며 "희망찬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염 추기경은 내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다. /연합뉴스


등록번호: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062) 513-4307 (전남대 법대졸업)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을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피(뽕나무뿌리 껍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화순군 공고 제2016 - 1064호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안) 공람 공고

화순군 한천면 동가리 농어촌도로 30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화 순 군 수

1.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1). 노선지정 결정(변경) 조서

| 읍면 | 도로의 종 류 | 노선명 | 노 선 번 호 | 도로구간 | |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 개발계획 | | 지정 (변경) 사유 |
|---|---|---|---|---|---|---|---|---|---|---|
| | | | | 기점 | 종점 | | | 도로너비 | 포장너비 | |
| 한천면 | 농어촌도로 | 동가선 | 309호 | 동가리 391-1 | 동가리 산 34-1 | 1.7km | - | 6.0m | 5.0m | 농도 확·포장 |

2). 노선지정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농도 309호선 | 농도 309호선 | • 확·포장<br>• 폭원 : 3.0 ~ 5.0m<br>• 연장 : 1.7km | • 농어촌도로 확·포장 |

※ 관계도서 (제제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2. 열람장소 : 화순군 도시과

3.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10(15일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061-379-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